

위급 상황 워싱턴이 받은 처방은 피 뽑기였다

(미국 초대 대통령)

세상에 변함없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이다. 성경에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말이 있다.

짧은 시절엔 누구나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게 보편적인 모습이다.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다. 그러나 시간 앞에 장사는 없는 법.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죽음을 의식하게 된다. 과연 죽음이란 무엇일까. 아니 죽음이 이르는 과정은 어떤 모습일까. 많은 이들의 죽음 가운데 세상에 이름을 떨친 위인이거나 예술가의 최후는 흥미를 끌기 마련이다.

기존의 위인전이 이야기해주지 않는 ‘죽음’의 사생활을 다룬 책이 나왔다. 화가이자 작가인 미국의 조지아 브래그가 펴낸 ‘옛사람의 죽음 사용 설명서’는 과거의 어처구니없는 의료 기술에서 기이한 죽음의 풍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죽음의 모습을 다룬다.

미국 독립의 영웅이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1732~1799)의 마지막 모습은 당시 의료 기술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

은퇴 후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 워싱턴이 받은 처방은 피 뽑기(bloodletting)였다. 당시의 의사들은 그의 몸에서 2.3ℓ의 피를 뽑아냈다.

성인들의 몸에 평균 5.4ℓ의 피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시술이었다. 결국 기력이 소진한 채 고통에 몸부림치던 워싱턴은 빨리 죽게 해달라고 애원해야 했다.

미국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어브램 가필드(1831~1881)도 의사들의 어처구니없는 조치로 죽음에 이르렀다. 당시 가필드는 어느 미치광이가 쓴 권총에 맞아 위급한 상황이었다. 의사들은 소독도 안 한 더러운 손을 몸에 넣어 총알 찾는 작업을 했다.

그로 인해 그의 등에는 30cm에 이르는 통로가 뚫렸다. 결국 그는 45kg이나 줄어드는 극심한 고

통을 겪으며 사망했다. 사체 부검 결과 총알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었고 주요 장기를 건드리지도 않았다.

위대한 예술가 베토벤(1770~1827)의 최후 또한 앞서의 예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1827년 폐렴과 수종에 걸린 베토벤은 입에서는 피가 흘렀고, 위장이 부풀어 올랐다. 그를 치료하는 과정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베토벤의 위장에 구멍을 뚫고 관을 삽입했다. 아마도 베토벤은 그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을 경험했을 것이다. 베토벤은, 진통제도 없이 맨 정신으로 자신의 배에서 40cm 정도의 고를 같은 끈직한 회갈색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10ℓ 가까운 양이었다. 게다가 의사들은 위장을 뚫은 구멍에 천 조각 몇 개를 끼워 놓고 봉합한 뒤 베토벤을 그날 집으로 돌려보냈다.”(162쪽)

이처럼 책은 ‘옛사람의 죽음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죽음에 관한 이색적인 기록을 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죽음과 연계된 다양한 문화도 집약돼 있다.

사후 세계를 믿었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미라 제조 과정, 서양 부검의 역사 등도 담겨 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처형 과정과 이후의 비극적인 상황도 나열돼 있다.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은 신비 화면 의혹으로 사체에서 뇌가 분리되어야 하는 운명을 맞기도 했다. 지금도 그의 뇌는 프린스턴 대학 어느 병리학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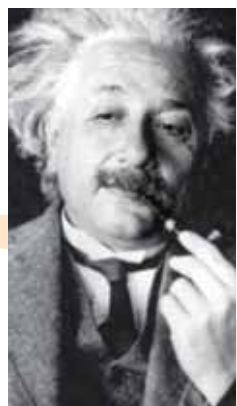
책을 읽고 나면 새삼 응급전화 119가 있다는 사실이 고맙게 느껴진다. 진통제, 엑스레이, 비누가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를 가까이 있다. <신인문사·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옛사람의 죽음 사용 설명서’

조지아 브래그 지음



아인슈타인은 사체에서 뇌가 분리되어야 하는 운명을 맞기도 했다.

자유·민권·평등·자주의식의 시대정신 ‘동학’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

조광환 지음

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0년이 되는 해다. 당시 농민군이 외쳤던 보국안민, 제폭구민, 척양척왜는 동학농민혁명이 주창했던 근대적 평등의식을 기초로 한다.

역사교과서의 조광환(정음 학산중)씨가 펴낸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자유, 민권, 평등, 자주의식을 표방했던 동학의 시대정신을 조망한다.

저자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사람들의 자취를 토대로 역사가 어떻게 시대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책에는 19세기 후반 조선 민중의 동향, 동학의 교세 확장고 교조 신원 운동, 사발통문고 고부 농민 봉기,



집강소 설치 등 당시의 상황이 연대기 순으로 재구성돼 있다. 역사교과사자 답사 안내자로서의 고민이 특유의 현장성과 함께 결부돼 있어 읽는 맛을 더해준다.

저자는 동학농민혁명을 시발로 조선의 봉건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역사인식을 견지한다. 정음이 함포의 틀이라는 지역을 넘어 역사적 공간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이유다.

“그동안 세상은 크게 변한 것 같지만 120년 전 개혁의 깃발 아래 탐관오리의 처벌, 지방을 타파하고 고른 인재등용, 조세개혁을 외치던 동학 농민군의 요구는 이렇듯 바뀌었을 뿐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살림터·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음식물, 소화기관 여행을 떠나다

‘꿀꺽, 한 입의 과학’

메리 로치 지음

음식물이 입을 통해 식도를 타고 들어가는 과정을 하나의 여행으로 비유한 책이 나왔다.

미국에서 “가장 유쾌한 과학 저술가”로 평가 받는 메리 로치가 펴낸 ‘꿀꺽, 한 입의 과학’은 인체와 관련된 소재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책은 매 단계를 거치면서 생기는 여러 화학 현상과 영양분의 배분 등을 과학적 실험과 통계를 통해 재미있게 소개한다.

초미미 디지털카메라가 보여주는 인체의 소화기관은 사투 이색적이다. 위는 온통 암녹색이고 동등 떠다니는 부유물로 가득하다. 저자는 “흡사 타이타닉호 다 큐멘타리를 보는 것과 같다”는 말로 느낌을 표현한다.



시간이 지나면 위속에 담긴 내용물은 위산과 각종 소화 효소와 섞이면서 죽과 같은 상태로 변한다. 카메라가 위와 소장을 구분하는 관문 격인 유문을 지나면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진다. 분홍색을 띤 소장 벽은 1mm 길이의 잔털(용모)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곳에서 많은 영양소를 흡수한다. 부엌 랩을 씌운 것 같은 미끈하고 윤이 나는 대장은 노폐물을 보관하고 말한다.

저자의 바람은 간단하다. “오웬, 역겨워라고 말하는 대신, 역겨울 줄 알았는데 기대보다 재미있다고 생각해주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울유문화사·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 아이의 죽음 둘러싼 갈등·복수

‘멸종 직전의 우리’

김나정 지음

멸종 직전의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구해낼 수 있을까.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를 극도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묵시록적 메시지를 담아낸 김나정 작가의 첫 장편소설 ‘멸종 직전의 우리’가 출간됐다. 소설은 한 아이의 죽음을 둘러싼 갈등과 복수를 담고 있다. 죽은 아이 이나림, 나림이의 엄마, 아빠, 친구, 친구의 엄마까지. 유력한 용의자 5명 안에는 죽은 아이 나림이도 포함된



다. 친구의 아이는 복수의 또다른 희생자다. 이십 년 전에 시작된 충격적인 사건, 그 앞에 엮히고 설킨 여섯 명의 끈질긴 인연. 자식을 지키려는 여자와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남의 아이를 유괴하는 여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여섯 명의 다중 시점을 통해 톨나바퀴가 맞물리듯 생생하고 긴장감 있게 펼쳐진다. 소설은 증오와 분노, 폭력의 심연을 들여다본다. <작가정신·1만2000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카네기의 성공철학·인생역정

‘인간관계를...’

스티븐 와츠 지음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저자, 세계적인 성공학 강사, 베스트셀러 작가, 대중연설 전문가 등으로 소개되는 데일 카네기. 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호칭 ‘현대 성공 철학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어떻게 단 한 권의 책을 3000만 부 이상 판매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격개발과 인간관계, 성공에 관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까.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미주리 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평전 작가 스티븐 와츠가 데일 카네기가 데일 카네기가 데일 카네기라는 이름을 전적으로 다룬 최초의 평전 ‘인간관계를 밝힌 남자’를 펴냈다. 책은 1930년대 급격한 변화 속에 있었던 미국에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성공 철학이 태동하는 과정을 데일 카네기의 인생역정과 함께 흥미롭고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풀어간다.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당당히 자기 삶의 정상에 선 12인의 철학

‘인생부자들’

조우석 지음

소리꾼 장사익이 나이 마흔다섯에 데뷔한 까닭은? 사진작가 김아타가 현대미술의 본고장인 뉴욕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학자 고(故) 김일규 교수

가 생애 마지막 인터뷰에 남긴 말은? 저널리스트이자 문화평론가 조우석이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12인의 ‘인생부자들’을 인터뷰한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나답게, 좀 나게 살아온 열 두 조르바를 만나다”라는 부제가 붙은 ‘인생부자들’에는 조르바처럼 당당히 자기 삶의 정상에 선 12인의 철학이 담겨 있다.

저자가 만난 12인은 모두 ‘인생부자’다. 돈이 많아 서도 아니고 한가하게 살아서도 부자가 아니다. 그들은 자기 욕망과 내면에 귀 기울여 우직하게 삶을 밀



어붙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 인생의 ‘독립정부’를 구축한 이들이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인공 ‘조르바’가 연상될 법하다. 소리꾼 장사익은 노래가 좋아 낙원상가 음악원원 기웃거리다 뒤늦게 나이에 꽃을 피웠다. 독학으로 사진에 뛰어든 김아타는 “주어진 조건대로 살지 않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각오”가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고백한다.

한국인의 질박한 삶의 궤적을 추적해온 고(故) 김일규 교수는 “저는 혼자 있다고 해도 외롭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홀로 있어도 충분히 자족적인 내가 있기 때문이지요”라는 말을 남겼다. <중앙m&b·1만4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신간

▲**사랑의 역사**=독서학자로서 평생을 책과 함께 살아온 남미영 박사가 독서의 기쁨과 인생의 여정을 담아 뜨거운 애정으로 풀어낸 책. 시공을 초월한 작가 서른네 명이 들려주는 애끓는 사랑의 강의이자,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인생에 뛰어난 젊은이들에게 바치는 사랑의 교과서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시작으로 ‘사랑의 기초’까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34편의 작품을 선별해 사랑의 가치와 의미, 성장과 인생에 대해 에세이로 엮었다. <김영사·1만3800원>

▲**조선동물기**=조선시대 선비들이 기록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눈에 비친 동물에 관한 이야기. 고전 속에서 우리 선비들이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찰했으며, 동물에 대한 지식과 관심은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시각에 대한 현대 과학의 평가를 덧붙였다. 세련되고 과학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일부 오류가 있지만,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 생물들을 분류하고, 특정 생물의 특징과 설명을 상세히 기술했다. <서해문집·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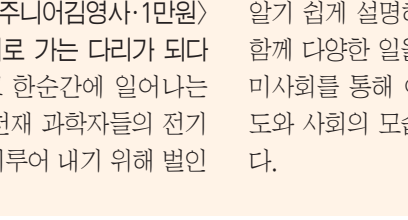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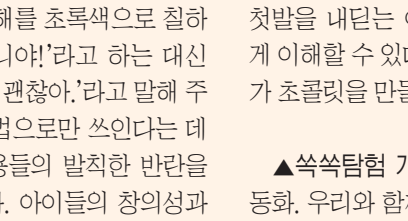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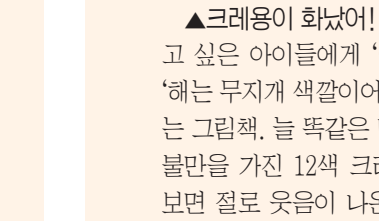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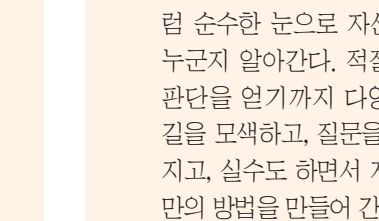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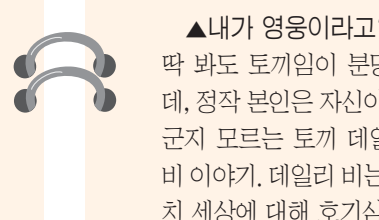
▲**아마존, 세상의 모든 것을 팝니다**=지구상에서 가장 공격적인 회사 아마존의 모든 것을 담은 책. 아마존이 창립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지금까지 아마존을 진두지휘해온 제프 베조스의 성공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등 아마존의 실체와 전모를 낱낱이 보여준다. 저자 브래드 스톤은 이 책을 쓰기 위해 300회 이상 취재했다. <21세기북스·1만8000원>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1998년 출간된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의 재개정판. 서울대 미술관, ECC Ehwa Culture Complex, 삼지길 세 곳은 그 훌륭한 가치와 의미를 전달해야 했기에 새로 추가해 선형 특유의 해석법으로 풀어냈다. 흔히 쓰이는 건축 재료인 벽돌, 돌, 콘크리트, 유리, 철, 나무, 유리에 따라 건물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진과 함께 보여준다. <휴먼출판·1만8000원>

▲**근대 한국의 자본가들**=자본주의는 어떤 과정을 통해 한국에 정착될 수 있었을까. 자본주의가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게끔 활발하게 자본주의적 경제 활동을 벌인 인물로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한국 자본주의의 연구에 전착해온 저자 오미일은 근대의 다양한 자본가 군상을 그들의 사회적 신분이나 배경, 자본 축적 토대와 경로 등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해 각 유형의 대표적인 자본가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이다. <푸른역사·2만5000원>

▲**뇌를 살리는 기적의 영양소**=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기적의 치료법’의 저자 진카퍼가 뇌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영양학적 전략을 보여준 책. 비타민 E나 알파 리포산, 은행, 보효소 Q10같이 뇌를 강화하는 특별한 보조식품이 기억력, 지능, 정신 기능 등을 극대화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북폴리스·1만4000원>



▲**내가 영웅이라고?**=딱 봐도 토끼같이 분명한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토끼 데일리 비 이야기. 데일리 비는 마치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어린 눈을 반짝이는 아이처럼 순수한 눈으로 자신이 누군지 알아간다. 적절한 판단을 얻기까지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질문을 던지고, 실수도 하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 간다. <사계절·1만2000원>

▲**크레용들이 화났어!**=해를 초록색으로 칠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아니야!’라고 하는 대신 ‘해는 무지개 색깔이어서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그림책. 늘 똑같은 방법에만 쓰인다는 데 불만을 가진 12개 크레용들의 발칙한 반란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나온다. 아이들의 창의성과 개성에 주목하고 고정관념을 깨뜨려준다. <주니어김영사·1만원>

▲**다빈치 과학의 시대로 가는 디리자**=모험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1권 ‘다 빈치...’, 2권 ‘프로이트 정신의 지도를 그리다’, 3권 ‘뉴턴 사과로 우주의 비밀을 열다’가 나왔다. <초록개구리·각 권 9500원>

▲**밤을 지키는 사람들**=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생생한 현장을 통해 ‘사회’를 배울 수 있는 어린이 인문 교양 그림책 시리즈.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이 사회를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다. 1권 ‘밤을 지키는...’, 2권 ‘누가 초콜릿을 만들까?’, 3권 ‘우리 동네 슈퍼맨’. <창비·각 권 1만1000원>

▲**쑥쑥탐험 재미왕국**=태극에서 만들어진 동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 다양한 생명체 중 곤충들, 특히 개미와 개미사회의 모습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성실한 개미의 일과와 함께 다양한 일을 맡아 조화롭게 살아가는 개미사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태도와 사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들려주고 있다. <정인출판사·8800원>

어린이 책꽂이